

나무

아름다움
깊음
울곧음

2019. 4. 25 - 9. 21

나무가 다시 나무가 된다
나무는 숭고한 정신과 인품으로
되살아난다.

선비의 올곧음과 절제미
학문과 서책에 관한 숭상이
고스란히 배어있다.

의관을 존중하며
의로움으로 향하는 선비의 삶은
우리러보는 나무가 된다.





깊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시간의 오랜 숨결이
조용한 기품으로 되살아난다.

장 문을 열면 나타나는
깊은 서랍 속 내밀한 기억이
그리워진다.

아름다움

단단하고도 부드러운
서늘하고도 따스한 나무결
나무가 아름다운 꽃이 된다.

별처럼 빛나는
나전의 섬세한 도도함,
그 찬란함

작고 어여쁜 것들에 끌린다.



나무, 울곧음·깊음·아름다움

2019년 봄 기획전은 <나무, 울곧음·깊음·아름다움>으로 조선시대의 목가구를 주제로 하였습니다. 선비의 울곧은 정신을 담은 서탁과 연상, 물건을 수납하고 보관하는 깊은 공간성을 가진 책장, 약장, 가께수리, 머릿장, 주철이층농, 작은 물건을 수납하고 운반하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자개함, 인케, 관복함, 경대 등 조상의 오랜 손길로 길들여지고 빛나는 70여점의 유물이 전시됩니다.

가구는 생활공간인 주거문화와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유교사상이 근간인 조선시대의 주거문화는 남녀가 유별했고 그에 따라 집의 구조는 안채와 사랑채가 엄격히 구별되었습니다. 사랑채에서 사용했던 남성용 가구는 그 당시 학문의 이념에 따라, 또 사용하는 사람의 성품에 따라 특색을 갖기는 하나 대부분 간결하고 단순합니다. 가구의 재료인 나무의 목리에 거슬림 없는 자연스러움과 인공적인 장식이 배제된 절제된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되는 사랑채 목가구는 대부분 조선 후기의 것으로 직선적이고 간결한 장식에 자연스러운 목리를 그대로 반영한 선비 문화의 정수를 보여 주는 가구입니다. 가구가 놓일 공간의 크기가 반영되어 독특한 형태를 갖거나 사용했던 선비의 성품에 따라 개성이 더해진 가구의 단순함과 품위는 현대를 사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 실용에서 오는 가구의 비례감은 볼수록 안정감을 주는 깊은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안방가구인 여성용 가구는 나무의 목리를 살린 자연스러운 가구의 공통점은 있으나 많은 의류, 생활용품 등을 보관하는 용도에 따라 부피감이 크고 풍부한 자태를 갖습니다. 단순한 남성용 가구와 달리 그 위에 장식이나 그림으로 아름다움을 더해 포근하고 화려하게 꾸민 특성이 있습니다. 용도에 따른 편리함에 형태 또한 예사롭지 않아 아름다운 공예작품을 보는 듯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꼼꼼히 다듬고 정성을 기울인 장인의 숨씨를 담은 가구의 세련됨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더욱이 조선 후기 부의 축적에 따른 상류층 가구의 화려함은 눈이 부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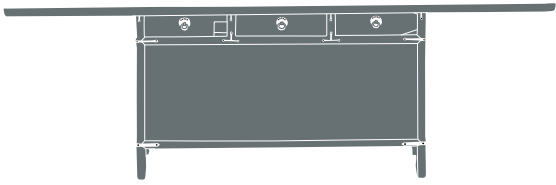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2011년 <사각사각>전에 이어서 하는 전시로 그때는 작은 께, 함이 주 전시품이었다면, 이번 전시는 가구를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사랑방, 안방 가구와 함께 아름다운 가구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주철의 깊은 아름다움과 자개의 현란함을 함께 보여줍니다. 특히 전통을 계승하는 의미로 20세기 후반의 현대 자개장도 전시에 포함시켰습니다. 전통 자개의 현대적인 확장을 보여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자개공예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로비에서는 전통을 이은 현대작가들의 나무와 자개를 이용한 회화 작품과 자개 공예품을 전시합니다. 작품 전시를 허락해주신 김성호, 채림, 이정인, 금다운, 송예진님께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유물을 대여해주신 국립민속박물관과 자개유물 기증자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온 힘을 기울여 노력해 주시는 학예사와 박물관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9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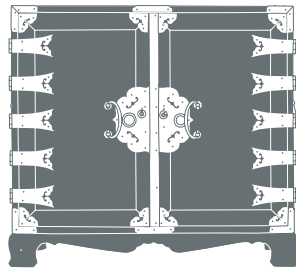
경운박물관장 장경수

목차



012

울거니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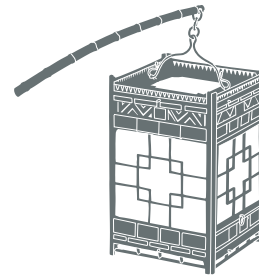
038

깊음



070

아름다움



108

따스함



128

화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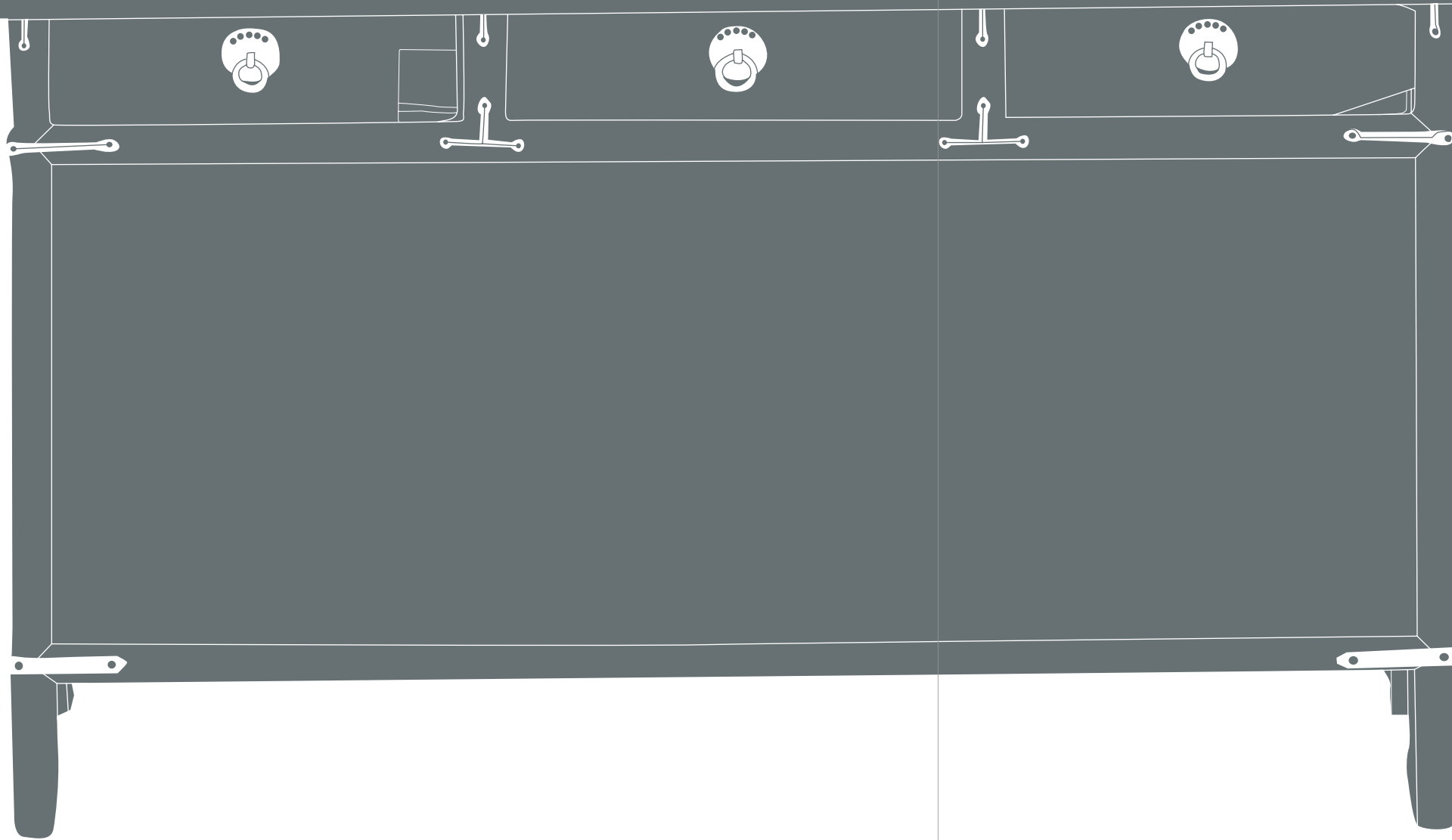
136

유물문물

나무가 다시 나무가 된다
나무는 숭고한 정신과 인품으로
되살아난다.

선비의 올곧음과 절제미
학문과 서책에 관한 숭상이
고스란히 배어있다.

의관을 존중하며
의로움으로 향하는 선비의 삶은
우리러보는 나무가 된다.





01
책장 冊櫥
Book Chest
19세기
가로 70 세로 44.5 높이 136
오동나무, 참죽나무



02

책장 冊櫥

Book Chest

18세기 말

가로 94 세로 43 높이 97

소나무, 모과나무





03

약장 藥櫥

Medicine Chest

18세기 말~19세기 초

가로 57 세로 22 높이 86.5

오동나무





04

서탁 書卓

Table

17세기

가로 152 세로 24 높이 52

소나무, 먹감나무



05

서안 書案

Writing Table

18세기

가로 64 세로 30 높이 32

오동나무





06

서안 書案

Writing Table

19세기 말 ~ 20세기 초

가로 83.5 세로 26 높이 34.5

소나무



07

연상 硯床

Inkstone Box

20세기

가로 42.3 세로 27.5 높이 28

모과나무



08

연상 硯床

Inkstone Box

19세기

가로 38 세로 19.3 높이 20.3

오동나무, 소나무



09

함 函

Box

18세기

가로 57.5 세로 28.4 높이 30.8

피나무



10

고비 考備

Letter Rack

19세기

너비 17.7 높이 42.4

대나무





11
붓통 筆筒
Writing Brush Stand
19세기 초
입지름 16.5 높이 16
대나무



12
족두리함 簇頭里函
Coronet Box
19세기
너비 20 높이 12.4
오동나무



13
팔각함 八角函
Box
19세기
너비 23.3 높이 24.8
오동나무



14

팔각함 八角函

Box

20세기 초

가로 35 세로 26.5 높이 21

오동나무



15

인궤 印櫃

Seal Box

19세기 말

가로 20 세로 20 높이 33

종이, 나무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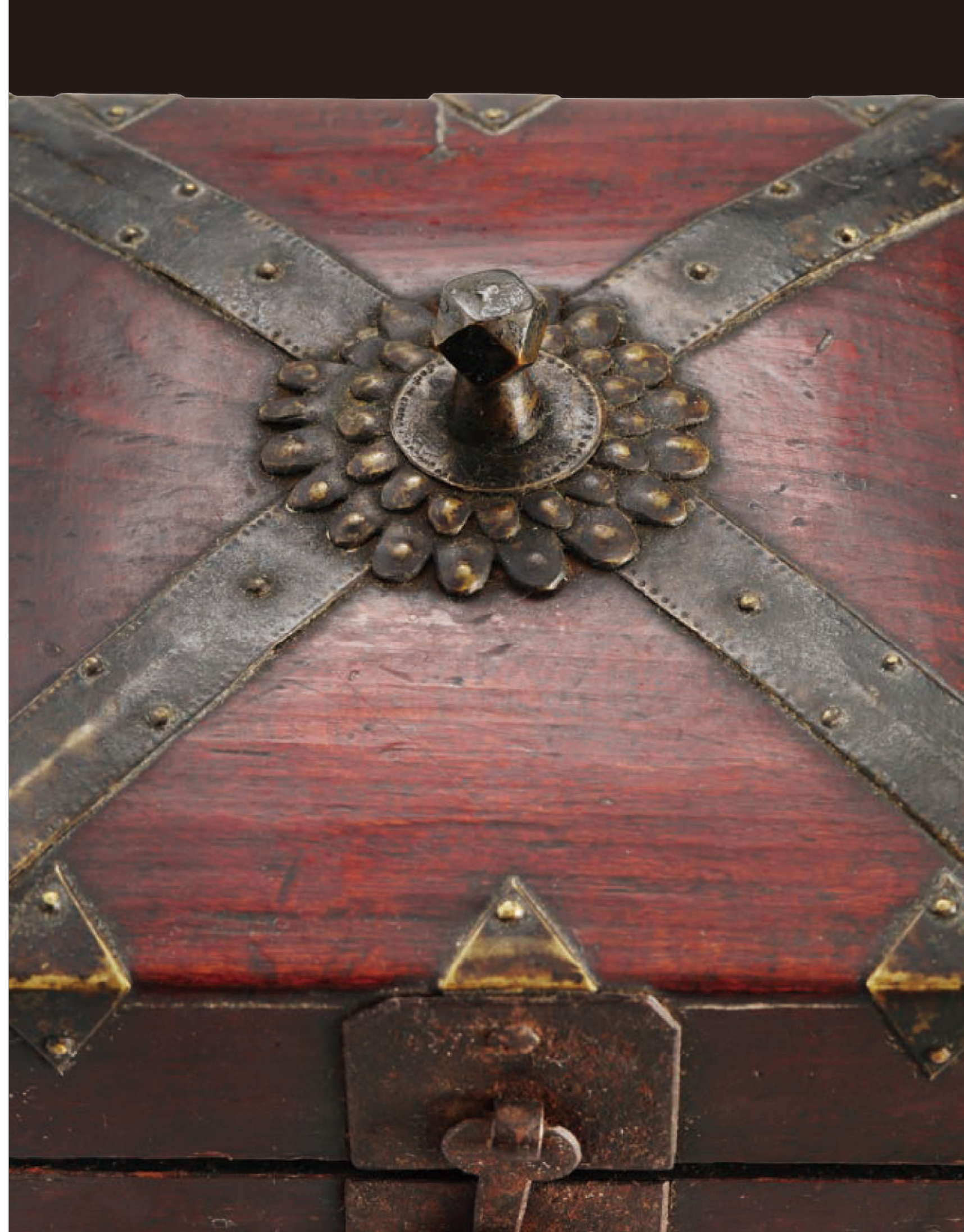
인궤 印櫃

Seal Box

18세기 말~19세기 초

가로 17 세로 17 높이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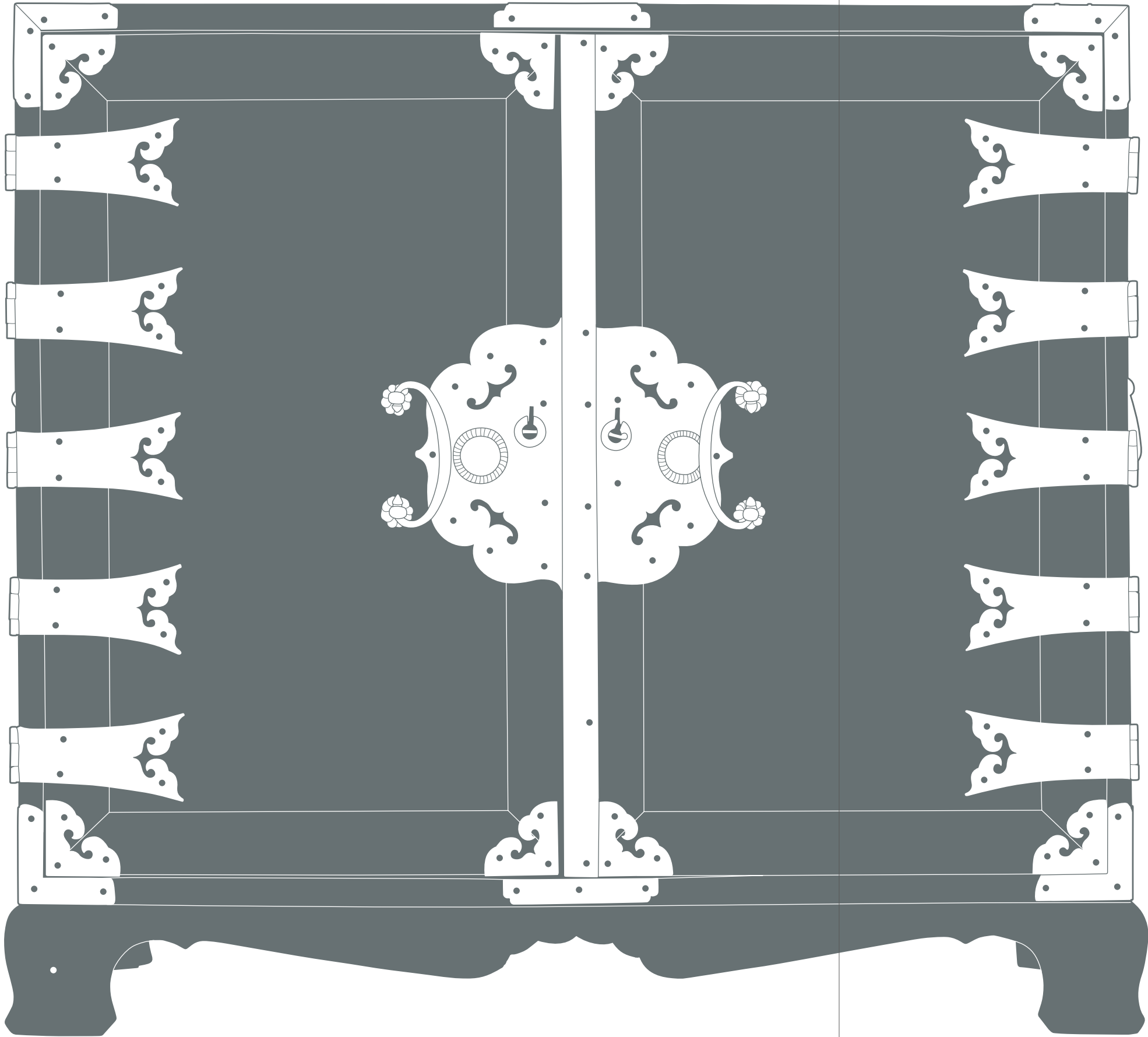
소나무



깊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시간의 오랜 숨결이
조용한 기쁨으로 되살아난다.

장 문을 열면 나타나는
깊은 서랍 속 내밀한 기억이
그리워진다.





17
책장 冊櫥
Book Chest
20세기
가로 113.5 세로 49.5 높이 112
소나무



18
머릿장 櫥
Chest
19세기
가로 78 세로 38 높이 52
잣나무





19

책장 冊櫥

Book Chest

18세기

가로 108 세로 43 높이 112

소나무





20

문갑 文匣

Stationery Chest

18세기 말~19세기 초

가로 117 세로 39 높이 59.5

소나무, 느티나무





21
가께수리
Safe

20세기 초
가로 68.5 세로 41 높이 64
소나무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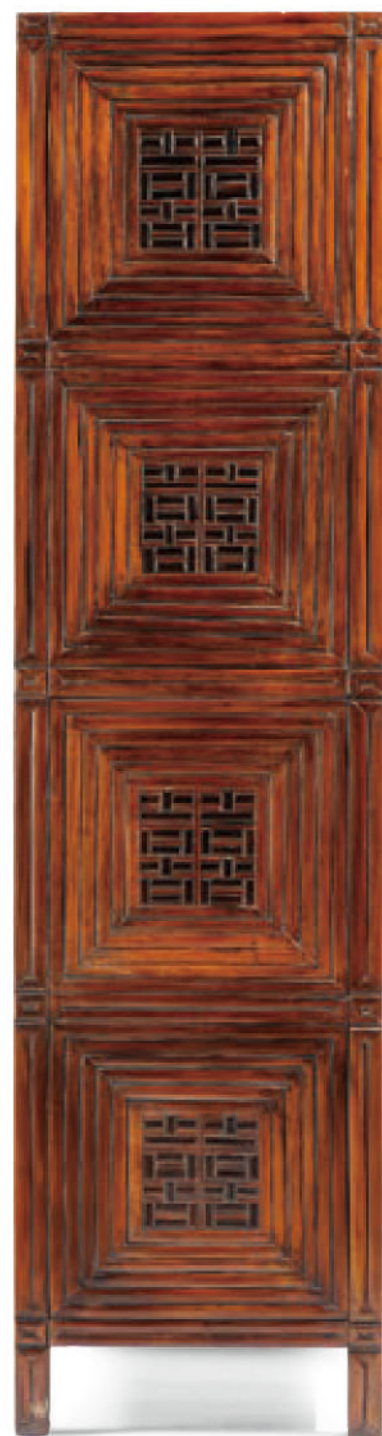
문갑 文匣

Stationery Chest

18세기 말~19세기 초

가로 108 세로 33.5 높이 46

감나무, 먹감나무



23
죽장책장 竹裝冊幪
Book Chest
20세기
가로 83 세로 42.5 높이 161
대나무





24

죽장책장 竹裝冊幪

Book Chest

18세기 말

가로 86.5 세로 44.5 높이 84

대나무, 소나무



25

화초장 花草櫥

Wardrobe

20세기

가로 104 세로 53 높이 154

소나무





26

주칠이층롱 朱漆二層籠

Lacquered Clothes Chest

19세기 말~20세기 초

가로 83 세로 43 높이 122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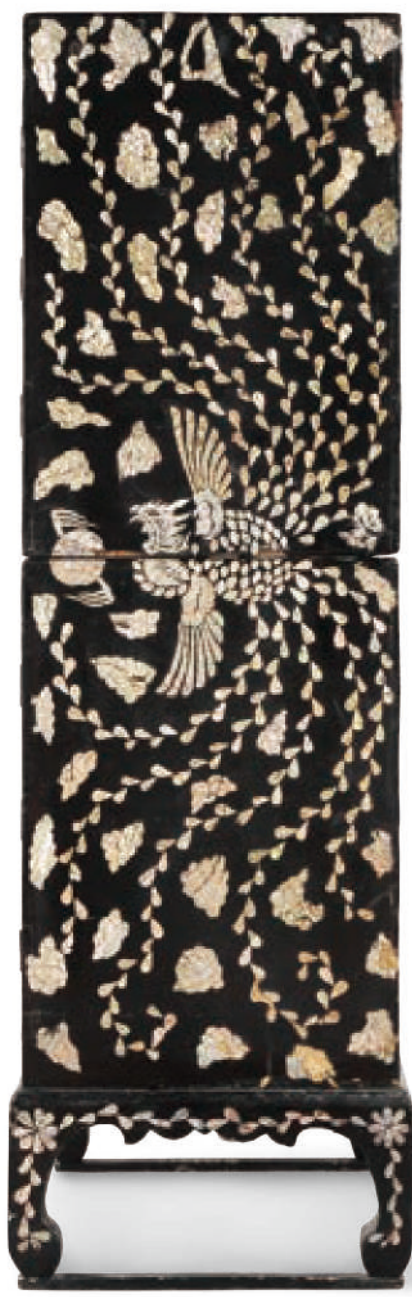
나전이층농 螺鈿二層籠

Clothes Chest Inlaid with Mother-of-Pearl

20세기 초

가로 80.4 세로 38 높이 112

자개



28

나전이층농 螺鈿二層籠

Clothes Chest Inlaid with Mother-of-Pearl

20세기 초

가로 79 세로 42 높이 156

자개, 대모





29

나전의결이장 螺鈿衣櫥

Wardrobe Inlaid with Mother-of-Pearl

20세기 초

가로 90 세로 50.5 높이 188

자개

